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2019 / 09-10
열매소식지

특집 “전국기윤실수련회 이모저모”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손봉호)

2019 전국기윤실 인천선언

기윤실이 만난 사람: 이창수(부산기윤실 청년연구원)

전국기윤실수련회 후기

김근주교수의 공동체를 위한 다니엘서 읽기 다니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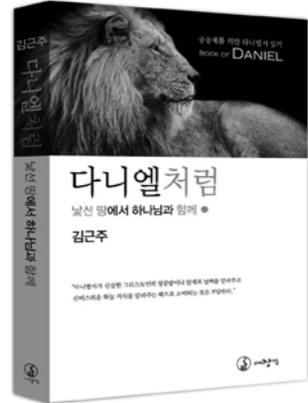


다니엘처럼

- 하늘에 닿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 교만하지 말고 공의를 드러내라
- 끝까지 가라
- 꿈 꿀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꾸라

낮선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니엘서가 전하는 환상은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저 내세를 소망하며 살게 하지 않고, 강력하고 단단한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차근차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쉽지 않은 현실을 각자도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역사의 현실 속에 서도록 촉구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가난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며,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지배자 집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한다.



김근주 지음 | 384쪽

메노나이트의 삶과 신학 입문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있어서 '예배'와 '실천하는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존 로스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전통에 속한 예배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세례, 성찬, 발씻김, 공동의 식사와 같은 교회의 실행예식들이 어떻게 현재의 독특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넓혀질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존 로스는 삶과 신학에 대한 놀라운 입문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메노나이트의 삶을 소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메노나이트들을 메노나이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듀크대학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저자

존 로스는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소통하는 멋진 소통능력을 갖고 있다. 이 책에서 존 로스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가 견지하는 신학적 관점, 교회론, 제자도의 핵심 요소들을 잘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역사적 아나뱃티스트들의 신념들과 현재 메노나이트들의 모습들을 정리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입문서다.

스튜어트 메레이, 『아나뱃티스트 성서해석학』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저자

이 책은 예배와 선교를 어떻게 예수의 정치학과 연결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다른 기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읽고 감사할 책이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마이클 카트라이트,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종교철학과 교수



존 D. 로스 | 김복기 옮김

CONTENTS

특집	“전국기윤실수련회 이모저모”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004
	2019 전국기윤실 인천선언	008
	기윤실이 만난 사람 : 이창수(부산기윤실 청년연구원)	012
	전국기윤실수련회 후기	014
더 높은 책무성	 자발적불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리스펙트”	015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 “영적 예배=당연히 해야할 일상의 일”	016
	 좋은사회운동 “부채상담스터디” 후기	019
	 청년운동 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후기	020
	 연대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후기	022
더 깊은 투명성	7·8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023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성서한국 사회선교박람회)	026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027
	카카오페이 후원창구 오픈 이벤트 / 나를 찾는 토요일 4회차 “마음산책”	0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강석창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섭 문애란 박제우 박종근 방성기 배종석 송인수 유해신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정병오 전재중 정애주 정원구 조홍식 주광순 한정화 홍정길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광삼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웅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김진우(상집위원) 김상덕(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만동(공동위원장) 이재민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임(부대표) 김애희(사무국장) 권순홍 김종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영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 박제민(팀장) 윤신일 조희준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정읍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년 9-10월호 **통권 272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19. 9. 27
편집인 정병오 **편집** 윤신일 **디자인** 정호연

보고기간 2019년 7월 20일~2019년 9월 17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크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 2019 전국기윤실수련회 설교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비민주적인 통제와 인권 탄압에 대해 항거했는데 요즘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대북한 유화 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요즘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간섭은 국가와 교회에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아니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좀 더 신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 교인들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트럼프 같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비기독교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사람을 미국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의 80%가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신약성경에 그리 많지 않다.¹⁾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내용뿐이다.²⁾ 이 부분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글.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

- 1)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3:1-7이며 유사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13-17, 디도서 3:1에 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는 타락한 로마 제국의 모습 등장한다.
- 2) 이 사건은 공관복음, 즉 마태(22:15-22), 마가(12:13-17), 누가(20:20-26)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속 국가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총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치안 유지와 행정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책임지고 있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고 물론 바리새인들과도 사이가 나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부류를 모두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옹무로 묶으려는 시도에는 한 패가 되었다.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거두는 것과 주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바쳐야 하는 주민세(poll-tax)는 어느 시대든 인기가 없었다. 로마가 이 세금을 징수하자 주후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는 민중을 총동원해서 폭력으로 로마에 항거했다. 유다의 저항운동은 일반적으로 열심당(Zealots)으로 알려진 여러 반로마 항거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주민세와 그것을 거두는 세리들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시대에 가장 민감한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옹무로 옹아매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릴 것이므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는 로마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선 예수님에게 아침을 쏟아 부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하심이니이다”(막 12:16). 비록 아침이

지만 이 내용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옹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악의를 숨기고 예수님이 경계하지 않고 솔직하게 생각을 털어놓게 하려는 술책이었던 것 같다. 그레 놓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물었다. “다른 군소리 하지 마시고, ‘예스’나 ‘노우’, 둘 중 한 가지만으로 대답하십시오”라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 후보자나 증인들에게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고는 그 틀에 맞게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침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짜 놓은 틀에 들어가지지도 않으셨다. “너희들이 세금 바칠 때 사용하는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유대인들은 제2계명에 따라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로마 은전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했다. 그 돈에는 황제의 초상과 “TI(BERIVS) CAESAR DIVI AVG(USTI) F(ILVS) AVGVSTVS”(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란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시대에는 어떤 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유대인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눅 23:2)라고 거짓말로 고백했다.

어쨌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일단 로마 지배에 항거하는 열심당과

는 거리를 두었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바리새인들은 쾌재(快哉)를 불렀을 것이다. 로마 지배와 주민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그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더 하심으로 그들이 비판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따라서 데나리온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나 정치권력이나와의 대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체요 정치권력은 그 전체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나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은 한 국가의 권위와 민주적으로 이룩된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수정하며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나 국가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항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인도적이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그런 로마 통치에 찬동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비판하고 개혁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으셨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민족주의자가 될 모든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적이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고, 메시아가 그 백성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대표라 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 의하여 지배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민족주의를 초월하셨다.

자기 나라가 강할 때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비판했고 지금도 일본 기독교인들은 과거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국에 사죄하고 있다. 강국 국민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강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민족주의를 초월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그 식민지 지배가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악랄할 때 그에 항거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 기독교인이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다. 그들이 회복하고 싶었던 나라도 역시 세상 나라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철저히 배격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기독교인이 정부에 반대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북한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민주국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고 심지어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심지어 기

독교인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필자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 시점에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거기에 마치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이념적’ 행동이다.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이념은 ‘거룩한 확신’이 되고 열광적이 되며 아주 쉽게 비이성적, 비도덕적 행동을 낼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얼마 전 하버드 로스쿨의 선스테인(Cass R. Sunstein) 교수는 그의 「#공화국: 소셜 미디어 시대의 갈라진 민주주의」란 책에서³⁾ 미국 국민들이 점점 더 이념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자녀가 다른 당원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1960년에는 공화당원의 5%, 민주당원의 4%였는데, 50년 후인 2010년에는 공화당원의 49%, 민주당원의 33%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뜻밖에도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좀 더 이념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념 차이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녀 결혼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SNS)라고 그는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심한 것은,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최근 사설에 의하면, 원래 보수는 이념적이지 않은데 우파는 이념적이라고 한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념적인 우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념’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절대화된 정치적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은 ‘과

학’(Wissenschaft)이고 자기 이론과 다른 모든 정치 이론은 ‘이념’이라 평가하면서, 이념이란 “거짓 의식”(falsches Bewußtsein) 혹은 모든 사물을 거꾸로 반영하는 “암실”(camera obscura)과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역설적으로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이 이념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에도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마르크스처럼 자신들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면, 그것과 다른 주장은 모두 이념이므로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념은 일종의 이론적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상의 특징은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아무도 우상을 우상인줄 알고 숭배하지 않는다. ‘거짓 의식’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는 중립적이고 사실에 입각해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모두 편향되었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도, 민족주의도, 정치적 메시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어느 것도 거기에 목을 맬 가치는 없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좌파도 다 상대적이고 일방적이다. 그 어느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우상숭배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절대적이다.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할 필요가 없는 것,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면서 의무다. 그런 태도는 영원히 확실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돈, 권력, 민족, 우파나 좌파의 이념 같은 상대적이고 하찮은 것들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³⁾

3)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2019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 선언

2019년 8월 14~15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19 전국기윤실수련회”에서 전국기윤실협의회가 발표한 선언문 전문입니다. 본 선언문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32년 전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별히 기윤실은 한국 사회가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특권과 이익을 취하는 부도덕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의와 부도덕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고 종교적으로 합리화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윤실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나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윤리적 삶을 실천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성경의 원리 위에 바로 서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운동을 실천해 왔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위주의가 많이 해소되고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 사회 복지가 확충되고 문화 예술이 발전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남북관계도 여러 굴곡을 거쳐 평화를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위화감은 더 커졌다.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은 더 공고화되고 있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갈등과 불신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과 결혼 출산에 대한 젊은층의 절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퇴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교회 성장의 복을 이웃과 사회로 흘러보내지 않고 교회당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 교회 내부를 위해 축적했다. 그 결과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담임 목사직 세습과 신규 담임 목회자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교회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개교회주의는 풍부한 종교 인프라를 활용해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촉진하는 대형교회를 탄생시켰고 공교회 의식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결과 성범죄나 거짓말, 재물 관련 범죄 등 목회자들의 도덕적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삶의 문제도 방치한 채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신뢰도는 갈수록 실추되고 있으며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이념갈등 문제에 교회

가 이념을 초월하여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함으로써 복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산적한 문제 앞에 기윤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32년 동안 기윤실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교회는 갈수록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윤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않



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주심과 부르심을 바라보고자 한다. 지난 32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 주어진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 담대하게 외치고 싸워왔듯이, 우리도 지금 주어진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한국 교회의 여러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붙들고 다음과 같은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

1.(절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절제를 생활화하며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나눔을 생활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탐심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2.(정직)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것이며 교회 내에서도 거짓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힘쓸 것이다. 인터넷을 떠도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분별력을 기르며 이해관계에 따른 편 가르기에 맞설 것이다. 우리 사회 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제도를 강화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3.(약자보호)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난민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갈수록 양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4.(교회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연약하여 부패와 개혁을 반복해왔다. 우리는 현재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부패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5.(권력 감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권력을 위임하셨지만, 이를 맡은 인간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져왔다. 그러기에 권력에는 늘 감시가 필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 기업, 언론, 종교,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않고, 모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

6.(이념대립 극복)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시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상은 교회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교회 내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7.(바른 가치)

타락 이후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를 왜곡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노동의 신성함을 폄훼하는 등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며 사회가 급변하고 여러 문제들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훨씬 어려워졌다. 우리는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이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천함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자 한다.

8.(건강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헌신하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란과 쾌락, 왜곡된 성적 가치,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가치나 문화와 싸울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적극 힘쓸 것이다.

9.(청년 지도력 양성)

한국 교회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어른 세대가 교회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의 주체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에 응답하는 사업과 운동을 개발할 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 어갈 청년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10.(공동선과 연대)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와 선물을 나누어주셨다. 우리는 타 종교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인 뿐 아니라 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힘쓸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하고자 한다.

11.(민족화해와 세계평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를 증오와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립해왔고, 교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지 못하고 분단 이데올로기에 굴복해왔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이 심화되고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좇아 얽은 이념과 편협한 국가주의, 그리고 이기적 욕망을 초월하여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며, 국제 사회가 평화 가운데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힘쓸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김해(준) 정읍(준) 제주(준)

2019 전국기윤실수련회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던 부산기윤실 이창수 청년연구원의 즉석 힙합공연이 열렸습니다. “21c 전도사 존재선언문”이란 곡을 불러주셨는데 가사도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특히 처음과 끝에 옥한흠 목사님의 육성도 들어가 있어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도사이자 래퍼로 사는 이창수 연구원의 삶을 더 들여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중재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창수(부산기윤실 청년연구원,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기윤실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 리튼바이 라이노(WRTN by RHIN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CCM 아티스트, 이창수 전도사입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토로, 기독교 정신과 힙합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가지면서 교회와 사회 양쪽 모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 전도사와 래퍼...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수 : 저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2004년 1월, 제가 고3으로 진학하던 해 겨울에 서울 여행 중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인적 변화를 순식간에 또 점진적으로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전도왕까지 경험했던 전직 문제 청소년은, 복음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기윤실 : 그럼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에 진학하셨던 건가요?

이창수 : 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삶에 일탈과 방황의 흔적들을 성화의 경험을 통해 해소하고 진학했죠. 그 과정에서 힙합은 비판적 점검을 통해 정비된 상태로 아직 제 삶의 주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는 제 변화된 인격보다는 귀걸이, 목걸이, 커다란 헤드폰, 힙합 음악, 혈렁한 티셔츠 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먼저 저를 대했습니다. 고민 끝에 신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힙합을 끊기로 다짐하고 제 삶에서 지워 버렸습니다. 그 결심은 8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제 청소년기 의식의 근간을 형성했던 요소를 지워낸다는 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현상을 선교학에서 말하는 ‘문화 충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도 선의가 있었지만, 아직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의식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

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도 지금처럼 힙합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습니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사명과 삶의 여정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여 사역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힙합문화를 떠나 있던 공백 기간이 약 8년 정도 됩니다. 지역 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한 뒤 다음 발걸음으로, 지금의 순회 사역을 한지가 또 8년이 되었습니다.

기윤실 : 특히 부산기윤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죠. 힙합과 윤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창수 :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교리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제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은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힙합의 여러 문화적 요소들 또한 비판적으로 선택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힙합은 밀레니엄 전후부터는 20여 년 동안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힙합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의 중요한 교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있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인격적이고 문화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받는 이의 참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선교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힙합과의 관계라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 개인과 교회, 사회라는 공동체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힙합을 사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힙합을 통해 사회에 표현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제가 14년 전에 신학교에서 겪었던 것과도 같은 문화충격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도 보입니다. 소통과 교제의 끈이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힙합이라는 현대의 문화적 언어를 통해 돌을 중재하는 중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윤실 : 중재인의 삶이라, 흥미롭군요. 좀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창수 : 사실 현재는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만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유행하는 일련의 문화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의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바로 힙합이고 힙합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교회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함과 특수성 때문에 다른 문화를 대상화 하고 때론 폄하하는 경향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는, 일단 그 문화의 역사와 특수성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소통하고 중재하는 것이 선교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닐까요?

지면상 충분히 다 실리지는 못하겠지만 힙합 문화는 미국 흑인 공동체의 근간이 되었던 미국 흑인 교회의 문화적인 요소와 상징, 정신을 무척이나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다소 의외일텐데, 힙합과 교회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립된 것이 아니라, 힙합에 '기독교적인 요소' 또는 아예 '기독교로 인해 기인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 인 상상력이나 철학적인 사변 대신에 역사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훨씬 더 힙합과 교회는 가깝습니다.

기윤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창수 :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힙합도 사랑합니다. 교회와 선교에 대한 책임만큼 제게는 힙합 문화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아까 중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두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힙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날](#)



◀ 21c 전도사 존재선언문
영상 보기

* 더 많은 이야기는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전국기윤실수련회 후기

글 박제민 팀장



1년에 한 번, 전국의 기윤실 동지들이 모이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기윤실수련회입니다. 올해는 인천기윤실 주관으로 인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1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48명의 기윤실 동지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첫날에는 인천 송도 투어를 했습니다. 멋지게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오늘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대학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뒤 개회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는 인천기윤실 김홍섭 공동대표, 대표기도는 부산기윤실 최정미 간사가 했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익산기윤실 이용호 사무처장이 합심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국기윤실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일로 힘겹게 사역을 이어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 있는 모두의 기윤실이란 생각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날 마지막으로 전 기윤실 간사였던 김성학 목사의 인도로 기윤실 정신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재밌는 진행과 알찬 나눔으로 기윤실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인천기윤실에서 정성껏 마련해주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문구를 고치고 조정해 “2019 전국기윤실 인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 기윤실운동을 해나가겠다는 각오와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인천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지였던 터라 인천에는 다양한 기독교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오늘의 모습이 실은 오래전 복음의 씨앗 위에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내일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2020년에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기원**

자발적불편운동 가을캠페인

리스펙트

글 박제민 팀장

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봄, 여름 환경주제에 집중했습니다. 가을에는 좀 더 일상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자는 기획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주제가 바로 리스펙트입니다.

영어 단어 리스펙트(Respect)는 “①존경하다”, “②존중하다”, 또는 “③(법률을) 준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래퍼들 사이에서 존경할만한 실력과 위치에 오른 래퍼에게 “리스펙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영향으로 젊은이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꼭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할만한 것, 재미있는 것 등에 덧붙이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형은 밥을 진짜 많이 먹어. 리스펙트 해.”

기윤실은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리스펙트” 단어에 “존중하다”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존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포스터에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해시태그 형태로 담았는데 그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젊은이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말고 존대말을 합시다.
- 감정노동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화해요.
- 대중교통 승무원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 파트너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춰주세요.
- 명절에는 같이 고생하고 함께 행복해요.
- 그밖에도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정해서 실천해보세요.



최근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리스펙트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김석준 교육감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 뭐냐고? 왜 ‘존중’해야 하나? 지금 당장 해봅시다! 타인을 리스펙트! 일단 리스펙트!”라고 중독성 있는 멘트를 외치며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윤실도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스스로 정해서 하세요, 리스펙트! ^^

영적 예배 = 당연히 해야 할 일상의 일

글. 옥성득(UCLA 한국기독교학 교수, <종은나무> 편집위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개정본, 로마서 12:1)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용하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다. 이 두 말이 함께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국 교회가 바뀔 것이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선교적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 예배’의 번역사

이 구절의 번역사를 통해 ‘영적 예배’의 뜻을 살펴보자. 원어를 몰라도 여러 번역본만 살펴봐도 도움이 된다.

- “當然之役” (1852, 문리본)
- “당연한 역사”(1887, 로스본)
- “당연한 역사” (1900, 구역 임시본)
- “당연한 **예법**”(1906, 구역 공인본)
- “**합리적 예배**”(1938, 개역본)
- “영적 예배”(1956, 한글개역본)
- “진정한 예배”(1972, 공동번역본)
- “합당한 예배”(2001, 새번역본)

첫째, 원어 로기켄(λογικὴν)은 19세기에는 ‘합리적이고 당연한’(reasonable)으로 번역되었으나, 20세기에 와서 영적인(spiritual)으로 다르게 번역했고, 21세기에 와서 다시 19세기 이해로 돌아가 합당한(rational)으로 번역하고 있다. 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단어를 ‘영적인’(spiritual)으로 번역했는지, 주석사 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번역자들이 근대성과 세속성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한 듯하다.

둘째, 라트레이안(λατρείαν)은 한문과 한글에서 ‘일’(섬기는 사역)에서 ‘예법’(禮法)으로 바뀌었다가 ‘예배’로 정착되었다. 영어는 service가 섬김과 예배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므로 좋은 번역이다. 한글에서는 문리본을 따라 ‘역사’(役事)로 하다가 1906년 첫 공인역 신약전서에서 놀랍게도 ‘예법’(禮法)을 채택했다. 번역자들이 이 단어(λατρείαν → service → 役事)를 놓고 고심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1938년 개역 성경에서는 앞 단어는 ‘합리적’으로 두고 뒤 단어만 ‘예배’로 번역하여 일종의 타협책을 찾았다. 그래도 해방 이전 개역까지는 “합리적 예배”였다.

로마서 12:1의 여러 번역본 비교

설교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원어 성경으로부터 스스로 사역(私譯)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여러 역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같은 어원의 영단어로서 logical이 있다.

- (1) KJV, 161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 (2) 文理本, 1856: 兄弟乎我念上帝憐憫勸爾獻身為活祭成聖此上帝所希當然之役也
- (3) RV (Revised Version), 188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 (4) 로스본 예수성교전서, 1887: 동성덜아니가하나님의헤가리무로써너희를권허여몸올디려성후며하나님의깃거후시는제롤되게후라곳너희게**당연헌역소라**
- (5) 번역자회 구역 임시본 신약전서, 1900: 그런고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주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야 몸으로 산 제소를 드려 거룩하고 하나님을 깃부시게 후는 거시 너희 **당연헌역소라**
- (6)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 (7) 구역본 신약전서, 1906: 그런고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주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으로 산 제소를 드리라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깃부시게 후는 거시니 너희의 **당연헌예법**이라
- (8) 개역본 신약전서, 1938: 그런고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기 깃버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너희의 **합리역레베나**라
- (9)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I appeal to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 (10) 개역본 신약전서, 1956: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기 깃버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배**나라
- (11) NRSV, 1989: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a]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 (12) Jubilee, 2000: Therefore, I beseech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in living sacrifice, holy, well pleasing unto God, which is your rational worship.
- (13) ESV, 2001: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a]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or rational] worship**.
- (14) Message, 2002: So here's what I want you to do, God helping you: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 your sleeping, eating, going-to-work, and walking-around life -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번역본 비교를 통해 우리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해방 이후 개역이 바꾼 것처럼 '영적인 예배'라고만 좁게 생각하기보다는, '마땅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메시지」 성경처럼 자고, 먹고, 일하고, 하루하루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곧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요 일이요 예배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바르게 사는 일상의 일이 예배이다.

영적(λογικὴν) = 합리적이고 마땅한

'영적'의 반대말은 '세속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불법적, 비양심적, 비상식적인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비영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논문을 쓸 때 표절하는 것이 비영적이며, 교회를 지을 때 건축법을 어기는 것이 비영적이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편법으로 받는 것이 비영적이며, 교회 헌법을 어기고 세습하는 것이 비영적이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절,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그것은 결국 탄로가 나서 처벌을 받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영적이다. 재벌 회사나 북한 정권처럼 세습을 통해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세속적 행위는 한국 교회의 신용도를 추락시키고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비영적이다.

예배(λατρεία) = 섬기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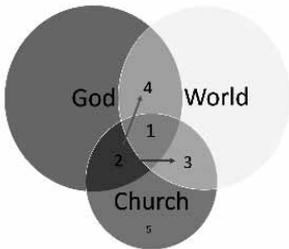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서 영은 ‘프뉴마’(πνεύμα: spirit)이고, 예배하다는 ‘프로스퀴네타스’(προσκυνοῦντας: worshipping)이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와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라트레이안(λατρεία: service)은 사역, 일, 섬김이다. 우리 몸 전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요 교회 일반 영적인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몸을 낮추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합리적으로, 마땅히 섬기는 것이요 예배이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된다. 만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요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다.

맺는 말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이지, 세상이 교회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므로 독생자를 주셨고 교회를 만드셨지, 교회를 사랑하여 독생자와 세상을 준 것이 아니다. 교회는 () 안에 넣어도 된다. 하나님 → 교회 →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 교회가 가서 섬겨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2번에서 3번으로 이동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속화된 공간이다. 탐욕과 권력과 돈과 음욕에 빠진 한국 교회가 3번 공간에서, 한기총, 세속 교회, 표절 교회와



함께 스러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4번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세상 속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늘고 있다.

제도 교회를 떠나 4번에 간 자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한다. 올해 그 비율은 25% 정도에 달한다. 전체 교인을 1,000만으로 잡으면 250만이 3번의 뜨거운 냄비에서 뛰어 나와서 4번의

가나안 영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3번 현상에 놀란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이 2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낡은 모델이라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일부 목회자는 5번 공간에서 성경만 가르치자고 한다. 문제는 그곳에는 세속도 적지만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이다. 1번의 공간으로 가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missional church가 된다. 30-40대 교인과 목회자들이 그 가슴 벅찬 공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세상과 부딪치고 있다. 그곳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일을 할 공간이다. **3월**

<좋은나무>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기윤실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데연은 목회자의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 요약본과 분석 자료를 웹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나무>는 구독자에게 목데연의 주간리포트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방법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좋은나무> 구독신청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을 제공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좋은나무>의 글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페이지 <https://cemk.org/goodtree/>

<좋은나무>소개 <https://cemk.org/8880/>

<좋은나무>구독신청 <http://bit.ly/좋은나무구독신청>

“크리스천 재무상담 스터디” 후기

글. 최진호 간사



누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빚 지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소비생활을 하고/ 부채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주위에 재무 상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을 5월부터 9월까지 총 9회 격주로 기윤실 회의실에서 모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멤버로는 콤팩 막힌 퇴근길에 안성에서 서울로 매년 올라오시는 김만천 목사님, 이제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엄정웅 형제님,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황인규 변호사님, 모임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김서로 상담사님 그리고 저(최진호 간사)까지 총 5명이 모여서 저녁식사/공부/나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터디 내용으로는 신앙과 돈의 관계/ 부채 윤리/ 여러 채무제도/ 부채상담사례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김만천 목사님은 “자신의 채무생활에 대해서 잘못 행해왔던 것들을 깨달았으며, 교회 성도분들이 재무상담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엄정웅 형제님도 “주위 청년들이 돈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전에는 뭐라 말해주어야 할지 당황했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재정 관리하는 법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략 6개월의 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느낀 것은, 빚을 권하는 사회/빚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부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며, 이를 조장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의 대학과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인생의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구조 속에 자비와 공평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격주저녁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쁘게 찾아와주시는 배움의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기쁜](#)

자체휴강프로젝트 <워드캠프>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일은 아니지만” 후기

글. 김현아 팀장

지난 8월 9일~10일, 청년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자체휴강프로젝트>에서는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 하는 <워드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주제로 갈등과 화해에 대해 나누고 배우는 1박 2일이었는데요. 함께한 청년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현장스케치를 공유합니다.

해가 쯤했던 8월 9일, 기대하며 기다렸던 기윤실 청년캠프가 열리는 날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 관계의 문제, 갈등 상황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윤실 청년위원들은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반차를 내고 모였습니다. (자발적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장바구니 한 가득 먹거리를 사고, 캠프가 진행될 세미나실을 정돈하고,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고 나니 어느덧 캠프가 시작되었네요.

먼저 백종원 청년위원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흥미진진한 게임들을 통해 처음 만난 서로가 긴장을 풀고 한걸음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신박한 핫 아이템의 선물도 받으며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조해진 청년위원의 여는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관계망, 갈등과 깨어짐의 원인과 잘 해소되지 않는 이유들, 갈등의 함의와 다루어가야 할 방향성, 갈등 앞에선 우리의 소명(절제와 용기 사이에서)에 대해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침묵하며 하루 동안 듣고 나누는 것들을 정돈하며 이어질 워크숍과 나눔 또한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캠프 둘째 날에는 비폭력평화물결 반은기 활동가를 모시고 놀이와 활동을 통한 써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 태도와 방식, 타인과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반응, 온전히 말하고 온전히 들어보는 것, 최근 내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들과 그에 대한 감정, 진행자가 되어 갈등사례를 조정해 보는 역할극 등을 통해 풍성하게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과 실습을 이제 일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1박 2일간 위드캠프에서는 #스머들기 #연결하기 #이해하기 #화해하기 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 인상 깊었고 필요로 했던 것들을 마음에 담아 자신들의 관계와 갈등 상황의 중요한 열쇠로 활용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스스로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중재자-화해자로서 살아가기를 기꺼이 소망하는 청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전한 곳, 평화의 메시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한 1박 2일 캠프에 진지하고 진솔하게, 유쾌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대들의 고민을 존중하고, 그대들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기실**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후기

글. 조희준 간사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4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주제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논쟁이 야기되면서,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였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이현주 국장이 사회를 보았고,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의 취지와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발제의 유경동 교수(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퇴직금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에게 퇴직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재산 축적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청지기 정신’에 맞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나눔’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발제의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는 퇴직금 제도의 변천 과정, 퇴직금의 성질, 퇴직금 관련 규정, 퇴직금 소득세

산 구조,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종교인 퇴직소득 개정안의 문제점은 원래의 공적 연금 관련 개정사항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예로 들며, 중요한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린 현재의 소득세법 개정 시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발제의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는 현재 사역 중인 생동교회를 실제적 예로 들어가며, 목회자 퇴직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갈등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고, 제대로 된 규칙이 없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중요 사역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가 모두 끝난 후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종교인 퇴직소득 개정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것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윤리를 기초로 교회 재정 문제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교회**

회계보고 | 운영성과표 2019 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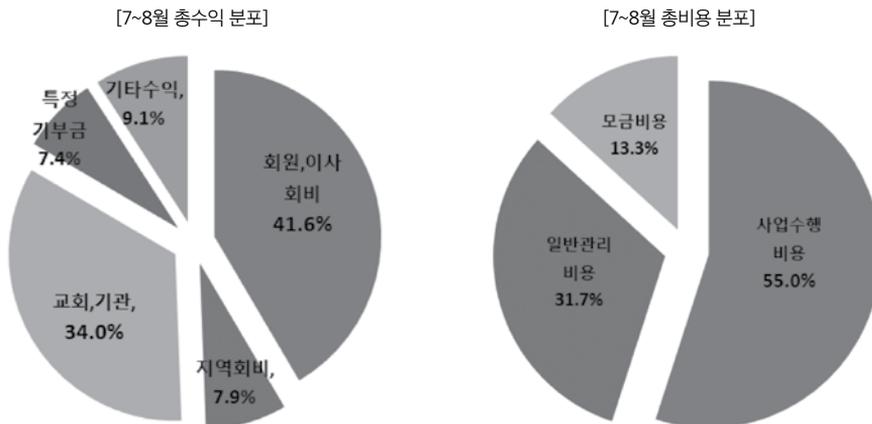
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과목	공익목적사업
I. 사업수익	47,476,000
① 회비수익(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23,591,000
② 일반기부금수입(교회/기관후원금)	16,240,000
③ 특정기부금수입(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3,550,000
④ 기타수익(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4,095,000
II. 사업비용	51,393,016
① 사업수행비용(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28,275,093
② 일반관리비용(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16,283,941
③ 모금비용(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6,833,982
III. 사업외수익	261,400
① 노동부지원금	260,000
② 잡이익	1,400
IV. 사업외비용	- 0
수익 총계	47,737,400
비용 총계	51,393,016
당기 순자산의 증(감)	- 3,655,616

*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순자산은 3,655,616원 감소했습니다.

* 2019년 8월 31일 현재 잉여금은 45,552,792원입니다.

* 수익-비용 분포 그래프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9년 07~08월
후원자명단



2019년 07~08월
후원자명단

7월

개인 후원금 (563명 / 10,157,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박정우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하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문경란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신화 이용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병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순홍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구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경미 김중호 김준영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남궁설 도낙주 류선민 류성희 류중우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은 박경순 박경춘 박민선 박상욱 박상호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윤정 박의진 박재장 박정임 박종구 박종민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방형애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희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현성 손현화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은심 신은정 신건수 신창조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영대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금성 이덕한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의현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지행 이진수 이종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임미정 임소희 임영재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윤희 장혜경 전병국 전종장 정규장 정규훈 정동혁 정명혜 정상복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재훈 정호연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태례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상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은 천무현 천선희 최규구 최경화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상호 한이수 한재광 한지연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기인 홍경진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권병희 김명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2만) 강은정 강춘근 강홍구 고은정 광상배 금은미 김대인 김동주 김명희 김민숙 김상한 김성천 김세진 김승섭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태훈 김홍섭 나종주 나희람 남재환 남제현 도중수 박경라 박기출 박득훈 박명배 박복에 박성령 박성일 박은미 박은하 박관근 박혜리 백경호 서입선 송성현 송형록 신국원 신대의 신영현 안연희 양낙홍 오세란 온상원 유영열 유혜영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임지용 자정화 장민구 장영상 정명환 정종목 조현영 최동우 최삼옥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인종 홍종락 (2만5천) 박세진 정세열 (2만6천) 김은영 (3만) 강석창 구예리 김선옥 김성봉 김영철 김충환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수창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은 서한홍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유지은 윤영석 윤혁경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빈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조승희 차정아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미 김경천 박명곤 손화철 오진선 홍관수 (5만) 광창대 권창희 김미숙 김용근 류은혜 북광수 박종은 박종진 박찬기 방은영 배지수 송연자 송운수 신은정 여동명 유혜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의용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익명후원자 전광현 정문희 조성돈 최광사 최병재 (5만5천) 조홍식 (6만) 김진우 손병철 (7만) 성영은 유인복 (10만) 김경래 김인빈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백종국 석중호 우창록 채홍석 현삼일 (12만) 배중석 이상민 (13만) 조현호 (18만) 정병호 (20만) 손봉호 (23만) 강영안

8월

개인 후원금 (566명 / 10,629,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박정우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문경란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업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영아 이정은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황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병호 유영신 (1만) 강병길 강민창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현 권순홍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돌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정미 김중호 김준영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안 김희정 나희량 남궁철 류선민 류종우 문규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은 박경순 박경춘 박민선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숙 박재창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택규 박혜윤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도원 서동천 서우미 서일향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손현화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희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영대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경천 이금성 이남경 이덕환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의현 이재민 이재운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지행 이진수 이충학 이태훈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화영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중화 임대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는 장윤희 장혜경 전병국 전종갑 정규훈 정동혁 정명혜 정상복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호연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정미 조준호 조태례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최경화 최병석 최상대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원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민승 한상호 한시우 한재광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병희 김명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노대웅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2만) 강은정 강춘근 강홍구 고은경 광상배 금은미 김대인 김동조 김명희 김민진 김상한 김성천 김세진 김승섭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욱 김종필 김진표 김태훈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남재현 도중수 문규영 박경라 박기출 박대훈 박명근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승호 박은미 박관근 박혜리 백경호 백은희 서인선 서영은 송성현 신국원 신대회 신영현 양낙홍 오세란 오진선 온상원 유혜영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수경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임지용 자정화 장민규 장영상 정명숙 정명환 정원 정중목 정혜자 조현영 최동우 최삼욱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관수 홍인중 홍종락 (2만3천) 박세진 정세원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예리 김강석 김명은 김선욱 김성복 김영철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수창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문 서한홍 손병철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근우 이장규 이준복 이친화 이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조승희 조우철 차정아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철 김태식 손화철 원연희 이세영 이종규 차연주 (5만) 광창대 권장희 김미숙 김용근 김인민 류은혜 목광수 박종윤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혜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의용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익명후원자 정문의 조성돈 최광사 최병제 (6만) 고재길 (10만) 김경래 박원주 박제우 박호용 백종국 석종호 우창록 조현덕 채홍석 현삼일 (12만) 배종석 이상민 (13만) 조현호 (15만) 손봉호 (1백5만5천) 조홍식

2019년 후원 기관 및 교회 (68곳)

(주)마인 (주)소프트이천 (주)가나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성교회 경주교회 고척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공산교회 남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사회협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제건교회 맘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별무리교회 보성글로벌(주)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람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부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안동교회 연약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오문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뚝새들넉교회 주안교회복지재단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성교회

신규/재개회원 | 기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4명) 강진미, 김상규, 배정운, 서도원

8월(7명) 김강석, 문규영, 박승호, 박인숙,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이태훈, 한민승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신습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실실 회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 07/29(월) 09:30 하반기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한국체육대학교)
- 07/30(화) 11:30 <좋은나무>-목회데이터연구소 MOU 체결식 (기윤실 회의실)
- 07/31-08/03 성서한국 전국대회(한국성서대학교)
- 08/06(화) 19:30 제6차 부채상담스터디(기윤실 회의실)
- 08/09-08/10 자체휴강프로젝트 With Camp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종로5가 여전도회관 블레스홀)
- 08/13(화) 19:30 제5차 청년위원회(서울역 인근)
- 08/14-08/15 전국기윤실수련회(인천대학교)
- 08/20(화) 19:30 제7차 부채상담스터디(기윤실 회의실)
- 08/26(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3회차(기윤실 회의실)
- 08/30(목) 14: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퇴직소득세미나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 09/03(화) 19:30 제8차 부채상담스터디(기윤실 회의실)
- 09/06(금) 07:30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09/09(월)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09/16(월) 19:00 제6차 청년위원회(삼각지 인근)

- 09/30(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4회차(기윤실 회의실)
- 10/01(화) 19:00 부채해방네트워크 모임(기윤실 회의실)
- 10/05(월) 14: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4회차 (서대문 안산자락길)
- 10/07(월) 사무처 분기회①(삼각지 인근)
- 10/11(금) 07:30 제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10/14(월) 사무처 분기회②(삼각지 인근)
- 11/04(월)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성서한국 회의실)
- 11/29(금) 14:00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교회와 공간: 하나님과 성경이 옵션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다"

활동스케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



2019년 7월 29일(월) 하루,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기윤실 하반기 사업 논의를 위해 상임집행위원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별히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님께서 오셔서 "포스트크리스텐덤의 시대 한국기독교"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기독교 사회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함께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점심식사와 휴식 시간을 갖고, 각 본부별 하반기 사업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크숍 참가자들이 함께 기윤실 하반기 사업 전체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윤실 하반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다듬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윤실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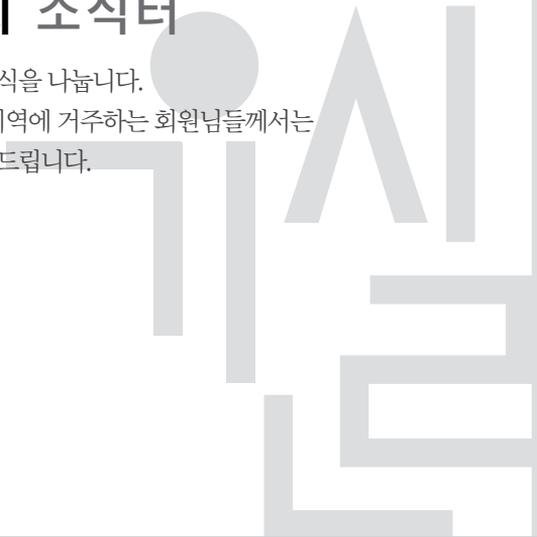
사회선교박람회(성서한국 전국대회)



2019 성서한국 전국대회(주제: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묻다.) 사회선교박람회에 기윤실이 함께 하였습니다. 8/1(목)-8/2(금) 오후2시-5시30분 사이에 사회선교/기독교시민운동에 관심이 있는 100여명의 가까운 청년들이 와서 기윤실 운동에 대해서 묻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청년들은 뉴스레터 구독 및 회원 기윤실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처 간사들이 종일 사무실 컴퓨터를 바라볼 때가 많은데,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기가 넘치는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 힘으로 하반기 사업들도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_^ (최진호 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주기윤실

1. 정기강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17일 오후 7시 / 큰기쁨교회
- 주제 :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1)
- 강사 : 유대철 소장 (오캄연구소)
- 문의 : 고경태 목사 010-8525-0288

인천기윤실

1. 정기모임

- 일시/장소 : 2019년 9월 26일 오전 7시 / 세나무교회
- 문의 : 이진오 실행위원장 010-8955-2520

2. 후원자 명단

- 양송
- 마포중앙교회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주소

광주 고경태 총무 / 010-8525-0288 / ktyhbg@hanmail.net /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 010-2018-4116 / nohandsong@gmail.com /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 010-9970-1291 / blanma@icloud.com /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 010-9182-7419 / mento123@hanmail.net /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울산 오주철 사무총장 / 010-2565-5208 / ojoocheol@hanmail.net /
(4494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5, 언양영신교회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 010-3996-7023 / iksancemk@naver.com /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 010-8955-2520 / greatc@hanmail.net /
(1007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롯데캐슬아파트 303동 704호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 010-3606-6745 / 123kslee@hanmail.net /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 010-9979-1010 / comnot@hanmail.net /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 010-9452-0214 / hsp0924@hanmail.net /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준)정읍 정종인 집사 / 010-3999-7802 / cibank64@hanmail.net /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준)제주 김광중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마음

#갈벗

같이 걸을까

#산책

#가을

2019년 10월 5일(토) 14-17시
서대문 안산 자락길

하염없이 걸어도 좋은, 왠지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가을날,
잠시 현생을 내려놓고 같이 마음산책 해보실래요?



기윤실 청년위원과 상담전공 청년들이 이야기 벗으로 함께 합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홈페이지 사전신청이 확인되면 자세한 안내 연락을 드립니다.

행사 안내
자세히보기 ▶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문의 김현아 팀장 02-794-6200 www.cemk.org 자체휴강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일상과 마음을 응원합니다.

기윤실 카카오페이 후원 창구



오픈 기념
이벤트!



잠속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피성도』
신동식 저
우리시대
(5권)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애란 저
복 있는 사람
(5권)

10월 10일(목)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로 후원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